



(cc: Basic Income Canada Network)

## BIYN 의 2014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 참가기 (1) “몬트리올, 갈 수 있을까?”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주은, 스밀라

### 기본소득 운동과 국제 네트워킹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라는 단체가 있다. 1986년 유럽의 네트워크로 출범한 이 단체는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국제대회를 조직하며 기본소득을 알리고 기본소득 운동을 연결하는 일을 해왔다. 2004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10차 총회를 계기로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로 확장한다. 비유럽인 회원이 많아지고, 호주와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유사한 네트워크들이 생겨난 까닭이었다. 한국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2010년, 17번째 가맹국으로 인준을 받았다. 기본소득 운동의 국제적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역사가 있는 셈이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Basic Income Youth Network, BIYN)도 2012년 런칭 당시부터 국제 연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지구적 빈곤 해소를 목표로 하는 전지구적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차치하고라도, 국내에 기본소득 의제를 추동할 정치 세력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상호참조가 가능한 국제활동을 통해 국내 기본소득 운동의 활력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이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 [<제임스 퍼거슨 방한 기념: 남아공과 한국의 기본소득운동>](#) 간담회, [<스웨덴 복지모델의 한계와 기본소득:Annika Lillemets, 스웨덴 녹색당>](#) 강연회, [<2012 기본소득 국제대회>](#) 등의 행사를 공동주최해오다가 2013년 말에 '국제교류팀'을 꾸려,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기본소득 이슈를 체크하고, 번역해야 할 내용은 '[기본소득 뉴스](#)'를 통해 전달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접하고 해외의 젊은 활동가들과도 간간히 연락을 취할 수록,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면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하는 욕망이 커졌다. 이에 [2014년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기본소득 총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하였다.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BIEN)'의 총회는 2년 마다 전 세계를 돌며 개최된다. 보통 3일 동안 행사가 열리고, 마지막 날 있을 총회에 앞서 이틀 동안은 기본소득과 관련한 강의나 토론이 진행되므로 기본소득과 관련한 연구자, 활동가들이 모이는 자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1월이 되자 총회의 페이퍼 모집 신청이 시작되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경제의 재민주화](#)>였다. 우리는 한국 청년들의 삶의 실태가 어떤지 분야별로 소개하고 기본소득과의 연결점을 설명하며 전세계의 청년들과의 접점을 찾기로 했다. 지금까지 역대 총회에서 발표된 것 중에는 청년을 주제로 한 것이 없기도 했고, 특히 한국 청년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3월 말이 되어서야 발표 개요가 승인되고, 4월부터 매주 만나서 페이퍼 작성을 시작했다. 5월에는 영국에 살고 있는 필립과 [기본소득프랑스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텔레마크, 스밀라와 주온, 통역을 도와주기로 한 기청넷 회원 기은이 주온의 집 방구석에서 첫 화상 네트워킹 회의를 했다.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서로의 존재를 알고, 메일만 주고 받다 직접 얼굴을 보니 반가웠다. 텔레마크는 스밀라와 주온이 남자인줄 알았다고 한다. "너희가 온라인 상의 가상 인물이 아니어서 기쁘다" 같은 소소한 농담을 나누었다. 각자의 소개와, 왜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지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회의 결과 컨퍼런스 기간 중에 청년들을 초대하는 두 번의 자리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페이퍼 마감으로 정신이 없던 와중에 몬트리올에 가서 짧게라도 참가자들의 인터뷰를 할 준비를 했다. 만나고 싶은 분들에게 메일로 문의를 했는데, 몬트리올에서 보자며 흔쾌히 수락하는 답장이 오자 우리가 가기는 가는구나 실감이 났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는 비용을 마련하는 문제도 있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항공비였다. 감사하게도 한국네트워크로부터 숙소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300만원 여의 항공비는 자비로 마련해야 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해주는 몇몇 단체에 문의해 보았지만 항공비는 민감한 항목이므로 지원이 어렵다는 답을 들어야 했다. 기청넷 예산이나 후원만으로 항공비를 마련하기엔 무리가 있고, 비행기 표를 끊기 직전까지 이러다 못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다행히 한국네트워크에서 일정 금액을 빌려주시기로 하고, 나머지는 주온과 스밀라가 가까스로 마련했다. 장기적인 국제 네트워킹을 생각했을 때 미리, 꾸준히 기금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몬트리올로 출국!**



우리는 6월 24일 오후 비행기를 타고 몬트리올로 떠났다. 먼저 시애틀 공항에 잠깐 내렸다가 바로 디트로이트행 비행기를 탔다. 힙합과 노동자의 도시 디트로이트~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찾아보니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무려 12시간을 머물러야 했는데 참으로 고통이었다. (그냥 오만원씩 내고 공항 호텔을 이용할 것을... 그때는 1만 원도 귀중했던 것이다) 공항에 있는 가게들도 모두 문을 닫고, 몇 명의 직원 외엔 아무도 없는 텅 비고 조용한 공항에서 발표 준비를 하며 긴 밤을 보냈다. 나중에 보니 구석에서 담요를 깔고 누워서 자는 사람들도 있었다. 의자에 기대 새우잠을 잔 후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드디어 몬트리올로 떠났다.

몬트리올 공항에 내리는 순간 눈 앞에 펼쳐지는 불어 날말들을 보고 약간 당황했다. 맞다, 여긴 퀘벡이다. 약간 까다로웠던 입국 심사를 지나 다운타운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이국적인 풍경들을 지나치며 가만히 버스에 앉아있다가 우리는 점점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이다. 옆에 있는 모든 차들을 추월하여 1등으로 달리는 공항버스 덕분에 안전벨트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나중에 들어보니 도로 환경이 안 좋아서 더 불안하게 느꼈을 수 있다고 한다. 몬트리올의 도로 포장도 그리 좋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혹독한 겨울 때문이고, 또 하나는 몬트리올도 한국처럼 건설 쪽 부패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좌) 붙어로 쓰인 지도를 보고 당황하는 스밀라 (우) 공항버스를 타고 이동 중

디트로이트에서 밤을 새고 헤롱헤롱한 상태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예약해주신 호텔에 도착했으나 예약자의 신용카드가 없어 체크인을 하지 못하고, 선생님들이 오실 때까지 5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호텔에 도착했지만 들어가지 못한 우리는 초라한 행색을 하고 몬트리올 시내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좌) 몬트리올 시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다람쥐 (우) 줄로 엮인 채 길 건너는 훈련 중인 몬트리올 아이들

#### 사전 워크샵 날, 스탠과 야마모리 도루 선생님을 만나다

오늘은 모든 비엔 행사에 앞서 **North American Basic Income Guarantee** 에서 준비한 사전 워크샵이 열리는 날이었다. 장소도 미리 보고 발표 준비도 할 겸 맥길로 향했다. 비엔 행사가 열리는 로스쿨 건물로 가니 행사 내내 안내를 맡은 니콜라스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참가자 등록을 하고 보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스밀라가 캐나다 네트워크로 소속이.....

로비 옆에서 발표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박이은실 선생님이 다가오셨다. “여러분들 도루 선생님 만난 적 없죠? 소개해드릴게요~” [야마모리 도루 선생님](#)은 도시샤대학에 계시는 분인데 2010년에 한국에서 열린 국제대회에도 참석하셨었고, 우리와 이전에 몇 번 메일을 주고 받은 적이 있는 분이셨다. 그러더니 “혹시 젊은 친구들을 찾고 있으면 여기 유럽에서 활동하는 친구가 있는데..” 라며 옆에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셨는데 그가 바로 프랑스 기본소득 운동의 스타니슬라스 주르당(**Stanislas Jourdan**, 모두들 짧게 스탠이라고 불렀다.)이었다. 스탠은 프랑스네트워크의 창립멤버이자 [유럽 이니셔티브](#)를 조직한 활동가로, 이번 비엔에서 우리가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도루 선생님 덕분에 쉽게 만나게 되었다.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래?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데!” 라며 바로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좌) 야마모리 도루 (우) 스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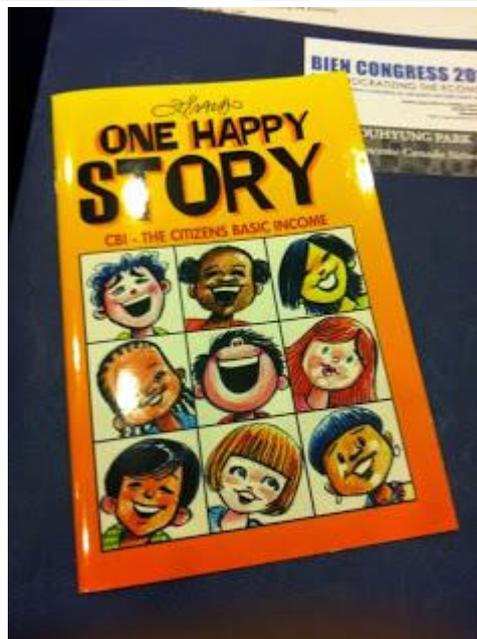
스탠과의 인터뷰가 끝나고, 도루 선생님과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도루 선생님의 ["잊혀진 여성들: 기본소득을 위한 싱글맘의 투쟁"](#) 라는 글을 인상깊게 읽은 적이 있던 터라, 준비된 것 외의 질문이지만 어떻게 여성과 기본소득에 대해 연구하게 되셨는지 여쭙었다. "긴 얘기가 될텐데...(웃음)"라시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추후 공개될 인터뷰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있을 발표 준비를 하고 나니 벌써 저녁. 시차 적응과 피곤함으로 흐물흐물해진 몸을 이끌고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 근처에서 저녁을 먹었다. 내일의 발표와 유스 모임도 부디 잘 마칠 수 있길.

## BIYN 의 2014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 참가기 (2)

아직은 시차에 완벽히 적응하지 못한 컨디션으로 맥길 로스쿨로 향했다. 뜨거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오르막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익숙한 뒷모습이 가고 있다. "혹시..

미스터 빠레이스...?” 정답! BIEN의 의장인 뽀 빠레이스(Pillippe Van Parijs)가 긴 다리로 성큼성큼 앞서가고 있었다. 반갑게 인사를 하니 “아, 어제 벨기에가 한국을 이겼네! 미안해요!” 라고 답했다. (그 전날 벨기에와 한국의 월드컵 경기가 있었다.) 앞서 메일로 약속했던 인터뷰 얘기를 하며 컨퍼런스가 열리는 로스쿨 건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브라질의 수플리시 의원이(Eduardo Suplicy) 통성명도 하기 전에 기본소득 책자를 내민다. 역시 ‘시민기본소득’ 법안을 통과시킨 [‘기본소득 전도사’](#) 답다.



(좌) 수플리시, 빠레이스, 스밀라, 필립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 수플리시 의원이 내민 기본소득 책자

로비에서 필립과 텔레마크를 만나 서로가 오프라인의 존재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텔레마크는 자신의 발표준비를 하러 떠나고, 필립과 우리는 개회식에 참석을 위해 3일 동안 행사가 열릴 Moot hall 로 향했다. 이번 총회를 준비한 캐나다 네트워크의 유르겐과 BIEN의 co-chair인 칼이 모든 참석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유르겐의 위트있는 유머와 이에 호응하는 참가자들과 함께 몇 차례 웃고나니 본격 행사가 시작되는 아침의 긴장을 풀 수 있었다.



같은 장소에서 이어지는 오프닝 강의에서는 UN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의 사무차장 안토니오 프라도(Antonio Prado)의 발표가 있었다. “평등을 위한 합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하여(Compacts for Equality:Towards a Sustainable Future)”를 주제로 그 지역의 경제 민주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사회지출비, 생산성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여주었다. 사회 지출비는 늘고 있지만 남미의 경우 낮은 생산성이 문제이므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를 통해 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에 공조해야 한다고 했다. 발표 후에는 "표와 차트들, 수치들은 충분히 이해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문제를 인식하긴 할텐데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죠?", "당신네 단체는 어떤 액션을 하고 운동에 무슨 기여를 하죠?" 와 같은 건설적인 질답이 오갔다. 무엇보다 Moot hall의 객석 양쪽에 배치된 두 개의 스탠딩 마이크가 인상 깊었다. 마이크 자체보다는 질문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와 마이크 뒤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풍경이 기억에 남는다. 이 모습은 모든 행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볼 수 있었다.

## 한일 기본소득 운동의 만남

그 후부터는 세션별로 다른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일본 세션에서는 자민당 정권으로 바뀌면서 사회보장정책의 여러 변화들에 대해 발표했다. 연금제도도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며 아베 정권 들어 개정된 공적부조 **public assistance** 정책은 조사 강화, 처벌 강화, 가족의 부양의무 강화가 더욱 강조됨으로써 자산 심사, 노동의무가 없고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부터 더 멀어졌다고 한다. 기본소득이 시행될 정치적 가능성도 더욱 낮아졌다. 일본 오사카 시장인 극우파 하시모토 도루가 2011년 출마 당시 내걸었던, 모든 복지제도를 부가세를 재원으로 한 우파적 기본소득으로 대체하겠다는 공약 정도가 주목을 받았을 뿐이다. 공공성 강화,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 기본소득제의 전국적인 담론화는 요원하다는 비관적 전망만이 남았다. 패널들의 발표가 끝난 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기본소득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을 드렸다. 진행을 맡으신 야마모리 도루 교수님께서 답해주셨는데, 동일본대지진 이후 피해자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 기본소득론자들이 개입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가족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하며 대상자 선정시 자산 및 노동 심사 않는 등 기본소득의 성격을 반영하려 했다고 한다. 초기에는 많은 호응을 얻었고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되었는데 몇 주 후 갑자기 관련논의가 사라지며 그 안이 폐기되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고 어떠한 압력이 작용했다고 추측할 뿐이라 한다.



일본의 부양의무제에 대해 설명 중인 카오리 카타다

한국 패널들의 발표 시간은 점심시간 직후였다. 컨디션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샌드위치를 먹는 동안 마는 동안 하며 잔디밭 옆에 앉아 발표 준비를 했다. 우리가 배정된 <Basic Income in Asia: Reflections from Korea> 시간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강남훈 선생님, 곽노완 선생님과 함께 했다. 강남훈 선생님은 “한국의 프리캐리야트 노동자를 위한 기본소득”을, 곽노완 선생님은 “노동의 재구조화와 기본소득: 프리캐리야트를 계급으로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은 필수적인가?” 를 발표하시고, 뒤이어 우리는 [“한국 청년의 불안정한 삶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했다. 외국의 청년 활동가/연구자들도

발표를 들으러 왔는데, 발표가 끝나고 AWCEP 멤버이자 페미니스트 활동가인 사라가 트위터 보안법이나 높은 청년 자살률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해주었다. 오쿠파이 운동에 참여했고, 현재는 '부채'를 주제로 활동하는 UCLA 에서 온 저스틴도 한국 청년의 현황을 알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발표가 끝나고 일본 호세이 대학의 조교수이자 기본소득 활동가인 카오리 카타다와 인터뷰를 위해 만났다.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사회적으로 비슷한 면이 많다보니 나눌 이야기가 많았는데, 후쿠시마 이야기나 한국의 일베, 일본의 재특회 등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고 저녁에 있을 유스 개더링에도 초대했다. "일본과 한국이 가까우니 서로 자주 초대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기본소득 아시아 네트워크를 만들면 좋겠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 웃으며 대화를 마쳤다.

## 인도의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하루의 마지막 일정인 전체 토론의 내용은 인도에서 있었던 기본소득 파일럿 실험의 결과 보고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SEWA(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의 Renana Jhabvala 와 우리에게서 최근 번역된 <프레카리아트>의 저자로 유명한 SOAS(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의 가이스탠딩이 실험 전과 후, SEWA 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차이 등에 대해 설명했다. 나미비아 등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수준이 크게 변화하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많아졌으며, 교육이나 주거 환경 같은 인프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시민의 자격을 얻지 못했던 여성들이 '개인에게 지급된다'는 기본소득의 특징 덕분에 '개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도 농촌의 여성은 자신이 자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이디 카드나 기타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기껏해야 있는 것은 워터 카드(물을 지급받기 위해 사용되는 카드) 정도였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여성들은 은행에서 자신이 자신임을 증명하고,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정받은 후 계좌를 만들어 기본소득을 지급 받았다. 본격적인 발표 시작 전에 인도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동영상("Basic Income Works!")을 함께 보았는데, 영상 속 가이 스탠딩 교수의 웃이 행사장에서 입고 있던 옷과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인터뷰에서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유니폼인 것 같았다.

개발학 프로젝트로 작은 규모로라도 실질적인 실험을 해보는 것의 중요성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것과 전국적인 운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 궁금했다.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같은 경우에는 실험이 대단히 성공적이었음에도 정치적 주도권을 쥐지 못했고, 반대세력에 의해 결과가 왜곡되며 기본소득이 메이저 아젠다가 될 수 없었다. 외부에서 재원을 끌어와 실험을 연장하는 것 외에 국가적인 제도화는 요원한 상황이라 들었다. 가이 스탠딩 교수에게 이 내용 그대로 질문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입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이러한 실험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참고: 인도에서의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기사

(1) [인도에 기본소득을! \(Livemint\)](#) (2)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르몽드\)](#)

## 수플리시 의원의 'Blowing in the wind'



기본소득으로 변화된 인도 마을의 이야기로 오늘 하루 일정이 끝나고, 맥길 대학 안에 있는 톰슨 하우스에서 리셉션이 열렸다. 간단한 음식을 먹으며 세계 각지에서 모인 기본소득 연구자, 활동가 등과 인사를 나눴다. 수플리시 의원이 앞에 나와 축사를 하고 존 바에즈 버전의 'Blowing in the wind'를 부르기 시작했다. 수플리시 의원은 기본소득 관련 행사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꼭 이 노래를 부르시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미 이 노래에 익숙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기에 리셉션에 있던 사람들이 노래를 따라 불렀다. 칼은 재빨리 노트북에 가사를 띄워 보여주었다. (사진 참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톰슨 하우스를 나오는 길에 내일 아침 세션에 발표하는 케이티를 만나 내일 있을 유스 개더링에 초대했다. 왠지 저녁으로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 날이었다.

### BIYN의 2014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 참가기 (3) "Do you know Basic Income?"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주은, 스밀라

#### 기본소득과 이주

둘째 날 오전에 참여한 세션에서는 "기본소득과 이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세계시민의 개념으로 전세계적 기본소득의 도입과 미국의 이주 정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미국의 경우 오히려 불법 이민은 줄어들었고 국경을 지키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며, 911 이후에 강화된 정책들이 효과가 없다는 말과 함께 멕시코의 빈곤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빈곤문제가 나오니 당연히 일자리 이야기가 나오고, ‘드론’도 언급되었다. 그 밖에도 기본소득을 주는 곳으로 모두가 이주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이주의 주요한 요인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다.

## 가이 스탠딩과의 만남



그 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 공동대표이자, 영국 소아스대학 SOAS(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개발학과 교수인 가이 스탠딩 인터뷰를 위해 빈 흠을 찾았다. 행사장 곳곳에서 마주칠 때마다 늘 격하게 반가워하시고, 우리의 패널 발표에도 참석해 열렬한 반응을 보여주셨던 터라 이미 친근함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때에는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이신 손제민 기자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다. 손 기자님은 기본소득에 대해 비교적 최근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운을 떼면서 가이 스탠딩의 저작 <프레카리아트>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북유럽식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물으셨다. 손제민 기자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의 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경향신문, 2014.7.2 \[양극화, 문제는 분배다\]“고성장 없이 지속 불가능한 스웨덴 복지모델, 한국에 해당 아니다”](#)

(2) [경향신문 2014.7.2 \[양극화, 문제는 분배다\] 저임금 많은 한국, 기본소득 도입하면 부의 재분배 효과](#)

극적인 톤과 제스처로, 마치 배우처럼 답변하는 가이 스탠딩과의 인터뷰는 인상적이었다. 운동에 대해 끊임없이 낙관하는 것, 변화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의 일부가 되려는 지치지 않는 그의 태도와 확신에 우리는 한껏 고무되었다. 그가 계속 기본소득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건 자신이 끊임없이 그 안에 참여하고 있고, 존경하는 동료들과 함께 있으며,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꾸준히 성취를 얻고 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다. 스밀라가

전날 밤에 몇몇 분께 연예가중계 스타일로 “사랑해요 기본소득~” 요청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냈다. 우리는 인터뷰 후에 가이 스탠딩에게 그것을 시도해보았다.



한국말을 익히고 있는 가이 스탠딩 교수

수플리시 의원과 브라질 축구



## 축구를 보고 있는 수플리시 상원의원

가이스탠딩 인터뷰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다음 세션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조금 쉬다가 점심을 먹으러 바깥으로 나갔다. 행사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에 갔는데, 합리적인 가격과 가까운 거리, 무료 와이파이가 있어 귀국 전까지 하루에 한 번은 갔던 곳이다. 그곳에 가니 유명인사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명하다고 해봤자 기본소득 운동 진영 내에서지만 말이다. 그 중에는 2004년에 브라질 시민기본소득법을 제정\*한 상원의원 에두아르도 수플리시도 있었는데 그는 오자마자 마침 시작한 브라질 대 칠레의 경기에 열광하느라 주문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 보였다. 브라질이 골을 넣자 너무 크게 테이블을 치시는 바람에 주위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 깜짝 놀라기도 했다. 런치 시간이 끝나갔지만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심지어 컨퍼런스 전에 실수였는지 발제문을 전체 참가자에게 발송하셨는데 그 메일 내용 중에 자신은 토요일에 브라질 경기를 꼭 보고 싶다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참고: [한겨레, 2009.4.13 \[평등한 사회 꿈꾸는 '기본소득제'특별기고\] 에두아르도 마타라쵸 수플리시 브라질 상원의원](#)

## 요안나와 핀란드의 기본소득 운동

이후 주온은 [bi news](#) 편집팀 회의에 참관을 갔고, 스밀라는 요안나 페키오를 인터뷰했다. 요안나는 기본소득 핀란드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고, 이번 총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어린 축에 속한다. 여기 저기서 요안나를 찾는 사람도 많고 워낙 컨퍼런스 일정 자체가 빡빡해서 쉬는 시간에 겨우 짬을 낼 수 있었다. 핀란드의 경우는 학생들 사이에서 기본소득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학생단체에서 기본소득 운동에 활발히 참여한다고 했다. 학생수당, 실업수당이 이미 있긴 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국가기관에 계속해서 증명해야하므로 상대적으로 기본소득이 가지는 이점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복지제도가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이와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기본소득이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복지 논의수준은 아직도 분배 대 성장의 프레임에 머물러 있어, 핀란드와 같은 복지국가의 사례가 미래의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그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그 한계가 오일쇼크,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전지구적인 상황으로 인해 드러난 것 인만큼 현재의 복지담론도 재구성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우리는 그 열쇠로 기본소득의 관점을 강력히 제안한다.

## 유럽 기본소득 운동의 두 스타, 스탠과 예노



유럽의 사례를 발표 중인 스탠과 에노

오늘 전체 토론의 패널은 스위스 이니셔티브를 이끌었던 에노 슈미트(Enno Schmidt, 스위스 기본소득 청원운동 **Swiss Basic Income Initiative**)와 유럽시민발의를 이끌었던 스탠(Stanislas Jourdan 유럽시민발의 **European Citizens Initiative**)이었다. 스위스의 경우 국민 13만 명의 서명을 받아 기본소득 보장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제안의 국민 투표를 앞두고 있으나\* 유럽시민발의의 경우는 140,000 명의 서명을 받는 데에 성공했으나 백만 명의 목표를 다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이를 준비하는 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범유럽적 홍보가 이루어졌고 불가리아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등의 수확이 있었다.

\*관련기사 : [경향신문, 2013.10.16, “일자리·복지로는 한계... 국민 누구든 먹고살 기본소득을 달라”](#)

스위스처럼 직접민주주의적인 장치가 있는 나라와, 아닌 나라의 차이가 있어 보였는데 두 패널은 기본소득을 위한 시민발의의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은 소득의 민주주의이므로, 이를 이루는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인에게만 맡기거나 텍스트 위주의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람들의 의견들을 직접 모으고 퍼뜨리고 조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스탠은 플랜 A가 안 됐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고, 알파벳에는 B부터 Z까지가 남아있다고 발표를 마쳤다. 유럽시민발의는 2015-16년에 다시 할 계획이라고 한다.

플로어에서는 스위스처럼 잘 사는 나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냐는 질문이 나왔다. 아마 이것은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가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는 기사가 한국에 소개되었을 때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던 질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에노 슈미트는 이것은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의 문제, 존엄성(dignity)의 문제이지 경제적 필요성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했다. 또한 자기 인생의 다음 스텝을 결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또래인 스탠을 알고보니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2년 정도 되었다고 했다. 다소 짧게 느껴질 수도 있는 시간에 비하면 그간 보여준 활약은 대단했다. 기본소득프랑스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유러피안 이니셔티브를 조직했으며 총회 후 돌아가서는 기본소득 썸머스쿨을 열고, [기본소득주간](#)에 맞춰 [신문을 발간](#)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행사 내내, ‘이론은 충분히 많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제 액션은 어떻게?’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 두 활동가의 행보는 매우 고무적인 것이었다. 무엇보다 새로운 방식, 새로운 도구, 새로운 말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스탠은 BIEN이 지금까지 닦아둔 기반을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 불꽃놀이와 함께한 유스 게더링의 밤

유럽의 이야기를 끝으로 컨퍼런스 행사가 끝나고 유스 게더링 차례가 왔다.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만 스마트폰을 쓸 수 있기에 연락은 잘 안 되고, 장소는 바뀌고, 누가 올지도 모르는 상태여서 처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이 모임이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었다. 그래도 텔레마크가 그 날 예정이었던 유러피안 이니셔티브 모임을 우리와 연결시켜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결국 우리는 컨퍼런스에 참여한 젊은 활동가, 연구자들이나 혹은 이 모임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근처에 있는 펍으로 갔다. 활동가들 뿐 아니라 컨퍼런스를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맥길 학생들까지 스무 명 정도가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이 날의 모임은 서로를 알고, 보다 활발한 교류와 활동을 할 청년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에 가까웠다.

각자 사는 나라에서 이미 기본소득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관련한 책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폴란드에서 온 마치라는 친구는 갑자기 스밀라에게 “너 혹시 곽노완 이라는 분을 아니?” 라고 물어 스밀라를 놀래켰다. 알고보니

막시스트인 이 친구는 마르크스의 논의와 기본소득을 연결지어 연구하는 논문들을 찾다가 곽노완 선생님의 글을 읽게 되었고 관심이 있다고 했다. 선생님도 지금 여기 와계시다고 알려주고 내일 꼭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해주었다. 모인 친구들 모두 느슨한 형태의 청년 조직을 만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관심있는 사람은 내일 회의 때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재즈페스티벌에서 열리는 불꽃놀이를 보러 반은 항구로 향했고, 반은 몽 루아알 언덕으로 향했다.



### "Do you know Basic Income?"

언덕으로 올라가 불꽃놀이를 바라보며 각자 사는 나라의 요즘 문제들, 특히 후쿠시마와 한국의 이야기를 나누고, 저스틴, 스탠과 이야기를 하며 숙소로 걸어갔다. 저스틴은 한국의 영화를 좋아해서인지 한국의 상황이나 설명들을 빨리 이해했고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었다. 미국 청년들의 상황과 한국 청년들의 상황을 서로 이야기 할수록 비슷한 점이 많이 드러났다.

스탠에게 한국 청년들 사이 만연한 무기력과 냉소, 탈정치와 반정치적 태도에 대해 이야기 하니 프랑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조직하니?"하고 물었다. 그는 갑자기 표정을 바꿔 나에게 "Do you know Basic Income?(너 기본소득에 대해 아니?)"이라고 말했다. 같이 신나게 웃으면서 잊고 있던 단순한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몇년 전 처음 기본소득을 알게 되었을 때의 두근거림이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소개하다보면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좋은데, 될까?'라거나 '말도 안 된다', '허황된 얘기다'라는 반응을 더 많이 접한다. 그러한 반복되는 반응의 축적으로 우리가 가진 선명한 비전을 전하기가 부담스러워 괜히 에둘러 얘기하거나, 방어기제로 비관적 단서를 앞서 붙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은 가장 21 세기 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매력적인 아젠다이다. 공지를 가져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곳곳에서 열정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또래의 동료들을 보더라도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기본소득 운동을 한지 우리도 이제 2년이 되어간다. 경영학을 전공한 스탠의 말처럼 마케팅과 조직관리도 공부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단체들도 계속 만나면서 여러 가지 전략과 도구들을 갖춰나가야겠다. 뻔한 말이지만, 우리부터가 동기부여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그리고 그 동기는 기본소득에 있었다. 몬트리올의 선선한 여름밤거리를 걸어가며 이곳에 오길 잘했다고 느꼈다. (활동가로서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는지도 이야기했는데 하필이면 그 중요한 내용이 알코올의 작용으로 인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 BIYN 의 2014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 참가기 (4) Basic Income Generation, 한국에서 만나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주은, 스밀라

드디어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이자 총회가 있는 날이다. 그리고 청년들의 모임이 만들어질 중요한 날이기도 했다. 오늘은 아침 세션 후 휴식시간에 빠레이스와 인터뷰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스밀라는 어떤 세션에 가도 빠레이스의 버섯머리와 폴라니의 딸이자 개발경제학자인 레빗 여사와 조우하였는데 이것은 곧 스밀라의 섹션 선택이 동시간 대에 가장 핫한 주제였음을 말해준다. 이에 비해 주은이 참석한 세션은 하나같이 강의실이 행할 정도로 사람이 적었다고 한다.



최대한 다양한 주제를 고루 듣기 위해 두 사람이 겹치지 않도록 시간표를 짰었는데 마지막에는 함께 <프레카리아트의 연대(Solidarity within Precarity)>라는 제목의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 사람들은 동시에 열리는 <복지국가 다시 생각하기> 세션에 몰려가서 유럽의 사례로 토론을 하느라 이 곳은 한산했다. 맨 앞자리에 운동복을 입은 수플리쉬 의원이 보였다.



<프레카리아트의 연대(Solidarity within Precarity)> 패널들

빠레이스와의 인터뷰는 간결하고 담백했다. "사랑해요 기본소득"에서 링크를 날리는 바람에 카메라를 든 손이 조금 흔들린 뻘 했지만 말이다. 와서 느낀 거지만 여기저기 남녀노소 다들 어찌나 링크를 그렇게 잘 하시는지 우리도 열심히 연습하기로 했다.



클로징 렉처가 끝난 후 오후 총회에 앞서 컨퍼런스는 마무리 되었다. 빠레이스의 멘트 중에 기본소득에 대한 사실적 질문(factual questions)과 당위적 질문(normative questions)을 구분하고 각각에 적절하게 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매일 가던 샌드위치 가게에서 필립, 요안나, 토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수플리쉬 의원이 펜과 종이 한 장을 들고 다가왔다. 브라질 대통령에게 기본소득법의 실행을 촉구하는 편지였는데 마지막에 이 곳에 모인 사람들의 서명을 받으려는 것이었다. 기쁜 마음으로 서명을 하고 총회가 끝난 후에 수플리쉬 의원님을 꼭 인터뷰 해야지 했는데 그분은 그 길로 비행기를 타러 가셨음을 뒤늦게 알고 후회를 했다.

## 에노 슈미트와 서로 인터뷰하다



인터뷰중인 스밀라

점심 식사 후에 에노 슈미트와의 인터뷰가 있었다. ([에노 슈미트의 발표세션이 담긴 둘째날 후기 보러가기](#)) 이제까지의 인터뷰는 거리의 소음을 고려해 실내에서 이루어졌지만 행사 내내 로스쿨 앞의 풀밭에서 참가자들을 인터뷰 하던 에노 슈미트는 본인 역시도 푸른 배경에서 하는 것을 선호할 것 같았다. 에노 슈미트는 원래 독일에서 순수회화 작업을 하던 작가였다. 그런 그가 어떻게 기본소득 운동을 하게 되었는지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관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직접 민주주의 절차를 이미 지니고 있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마침 스위스에 온 후에 동료인 다니엘 하니를 만나게 되어 함께 스위스 이니셔티브를 결성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기청넷에서는 그가 다니엘 하니와 함께 만든 기본소득 다큐멘터리 [<기본소득: 문화적 총동>을 번역하고 상영회](#)를 열고 있는데, 올해초 시사회에서 나왔던 반응들을 전해 주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막 시작된 총회에 들어가려는 찰나 그가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어떤지 물었다. OECD 에서 발표한 수치들만 보아도 암담해지는 주제를 꼭 짚어

질문하다니, 우리는 "아주, 아주 나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었다. 운동사회마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자 갑자기 그는 "그렇다면 너희를 인터뷰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얼떨결에 아주 짧은 인터뷰를 마쳤다. 어쨌든 영광이었다.

### 다음 총회는 한국에서



총회 진행중인 비엔의 공동의장 칼 위더키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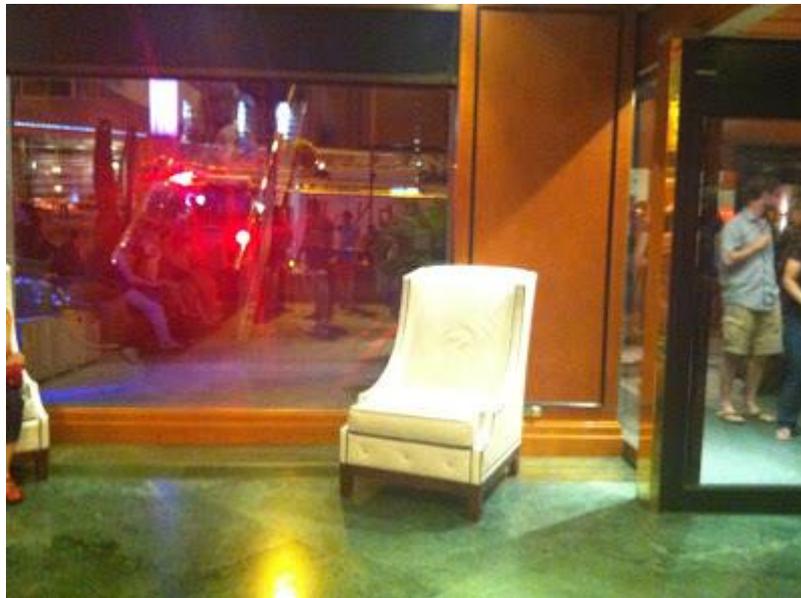
총회에서는 새로 결성된 프랑스와 노르웨이, 포르투갈의 기본소득네트워크, 유럽네트워크 등의 멤버십을 승인한 후 차기대회 개최지를 선정하는 것이 주요한 안건이었다. 한국과 핀란드, 네덜란드에서 유치를 희망해 프로포절을 제출한 상태였다. 개최지 선정에 경선이 있는 건 흔치 않은 경우인데 이 상황은 아무래도 최근 유럽에서 기본소득에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점심시간에 네덜란드에서 오신 활동가 한 분이 혼자 있던 주온에게 다가와 발표를 잘 들었다며 이따가 개최지 선정 때 보자며 회심의 웅크를 보내고 가셨는데, 그 분이 네덜란드에서 총회를 개최해야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발표를 하셨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세 번째에 이르러서는 도통 기억이 안 나 말씀을 못하시고 말았다. 안타까우면서도 청중 가운데서 큰 웃음을 자아내었다. 두 후보지에서 양보를 해주어 최종적으로 한국이 개최지로 선정됨과 동시에 15회 총회가 막을 내렸다. 모두 함께 한국에서 보자는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떠났다.

### Basic Income Generation 결성!

총회는 끝났지만 유스 네트워크를 위한 회의는 이제 시작되었다. 월드컵 기간이라 모든 폼마다 축구경기가 방영되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진지하게 논의를 이어나갔다. 젊은

활동가 위주의 모임을 만들자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였고 그 이름은 스탠이 제안한 "Basic Income Generation"이 되었다. Youth 라는 말의 모호함을 애써 정의하느니 애초에 그럴 필요없이 다가올 미래세대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소득 세대'의 명쾌함에 모두들 흔쾌히 동의했던 것이다. 말 그대로 기본소득을 받는 세대가 되고 싶은 마음도 담았다. 함께 해보고 싶은 일로 기본소득 페스티벌이나 워크샵 등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서로의 거리를 고려했을 때 웹을 기반으로 기존의 베이직인컴뉴스의 SNS 계정을 운영하거나 뉴스레터 등을 발행하는 것을 우선적인 프로젝트로 정했다. 우리의 모임을 소개하는 문구를 만들기 위해 모인 사람들 모두가 함께 키워드를 모은 후 첫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 지난 3 일을 되돌아보며 쉬고 있는데 복도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뭐지...?" 하고 자세히 들어보니 '가까운 출구로 대피하라'는 말이 들렸다! 여권만 챙겨 16 층에서 1 층까지 계단을 따라 내려오니 다행히 별일은 아니었다. 끝까지 긴장감 넘치는 밤이었다.



긴장감 넘치던 밤

## 에필로그

혹시 사고가 난다면 인터뷰 영상이 들어있는 아이패드라도 잘 챙겨서 대피하자고 생각할만큼 모종의 책임감을 느꼈었는데, 다행히 아이패드도 우리도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이 출발 전 여행가방 쌀 때의 목표였다. 얼마 전에 새로 만든 명함을 전부 다 써버릴 각오로 가져갔으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우리 명함에는 스밀라의 제안으로 점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좋은 아이디어라며 칭찬했다. 비어있는 명함지갑은 받은 명함들로 채워졌다.

같은 주제로 고민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앞서 기여한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본다는 것은 큰 경험이었고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다. 대화 중에 누군가가 "행사를 꼭

오프라인으로 할 필요 없지 않을까?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라고 말하자 야마모리 도루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일본에선 기본소득이 굉장히 마이너 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고 간혹 고립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소득 운동에 대해 실컷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우리 역시도 총회 기간 동안 이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다만 아무래도 BIEN의 주요 구성원이 연구자여서 그런 것인지 전통이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행사에 연구발표나 토론 외에 활동적인 워크숍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없었다는 것이 아쉬웠다. 행정가, 연구자, 활동가 외에도 개발자나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한국에서 열릴 총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준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총회 참가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항공비 마련을 위해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선생님들, 통역과 번역을 도와준 기청넷 회원 기은과 켈리, 그 밖에 조언해주신 많은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전세계에 있는 기본소득의 친구들을 한국에서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길고도 짧은 3일 동안의 총회 후기를 마친다. 2016년엔 한국에서 만나요! 우리 모두 기본소득 세대 Basic Income Generation 가 됩시다! (끝)

## 관련 사이트

1. 총회 공식 사이트 <http://biencanada.ca/congress/>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페이퍼들을 다운받을 수 있다. 주요 세션의 동영상도 볼 수 있다.
2. BI news <http://binews.org>
3.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http://biyn.kr>
4.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http://basicincome.kr>
5.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http://basicincome.org>

## 총회 관련 보도

1. [한겨레] “기본소득, 불안정노동시대 위기 극복할 최선의 대안”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 15 차 총회 참가기 / 박이은실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645661.html>
2. [한겨레 21] ‘기본소득운동’ 다음 행선지는 한국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 15 차 총회 참가기 / 안효상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7451.html](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7451.html)
3. 경향신문, [양극화, 문제는 분배다] “고성장 없이 지속 불가능한 스웨덴 복지모델, 한국에 해답 아니다” / 손제민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022145115&code=9406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022145115&code=940601)
4. 경향신문, [양극화, 문제는 분배다] 저임금 많은 한국, 기본소득 도입하면 부의 재분배 효과 / 손제민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407022145335&code=9406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407022145335&code=940601)

